

‘글로벌 성대’ 날개 달아준 故 이건희 회장 별이 되다



미국 시사주간지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US 뉴스)는 최근 발표한 2021 세계대학순위에서 성균관대를 국내 2위, 세계 205위에 올렸다. 이밖에 공신력 높은 여러 세계 대학 평가에서도 모교는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인재 산실의 메카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모교의 눈부신 성장 배경으로 '삼성재단'을 빼놓을 수 없다. 거기엔 지난 10월 25일 향년 78세로 타계한 한국 재계의 큰 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있다. 이

삼성, 수요자 위주 교육 통해 성균관대 혁신 최고 수준의 교수 영입·우수한 신입생 유치

회장은 삼성그룹을 반도체, 모바일, 가전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비단 경제 산업 분야 뿐 아니다. 사회 교육 분야에서의 성과도 남다르다. 특히 지난 1996년 의대 설립을 위해 재단의

일원으로 경영을 맡으면서 성균관대의 면모를 일신했다. 삼성의 일등주의는 교육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됐고 눈부신 성과로 나타났다.

삼성의 성균관대 변화 전략은 수요자 위주의 교육이었다. 인재를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겼던 이 회장의 철학에 바탕을 둔 것이다. 최고 수준의 교수들을 영입하고 신입생의 10%를 수능 1% 안에 드는 학생으로 채운다는 목표도 거기서 나왔다. ▶2면에 계속

03 SPECIAL

유학대학 동문 13명, 통큰 후배사랑



04 MESSAGE

윤용택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05 CLOSE-UP

조서운(78 화학) 다윈디자인 회장

삼성의 힘, 시대를 앞서가는 대학 '원동력'



삼성재단, 연구활동 전폭적 지원 시너지 '취업 특성화 학과' 미래산업 인재의 산실 산업현장서 탁월한 능력... 취업률 1위 결실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성균관대 의대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수준의 의대가 됐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THE'가 실시한 2019년 세계대학평가에서 성균관대 의대는 '임상·전임상·보건' 부문 세계 41위, 국내 1위 의과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모기업 삼성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신설된 취업 특성화 학과들에는 우수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반도체시스템공학과를 필두로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글로벌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학과는 미래산업 인재 산실의 요람으로 우뚝 섰다. 이들은 산업현장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고 우수 인재 입학, 졸업의 선순환 구조

를 만들었다. 성균관대가 국내 상위권 17개 대학 가운데 취업률 1위(대학알리미 통계 기준)를 굳건히 지키는 이유다.

삼성재단은 인수 후 10년간 재단 지원금을 매년 100억 원씩 늘려 2007년엔 1,000억 원에 육박했다. 연구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확대도 돋보인다. 삼성이 참여하기 이전 한 해 82억 원(1996년)에 불과했던 학교의 연구비 수주액은 지난해 4,563억 규모에 이른다. 교수들의 연구 여건 향상은 자연스럽게 연구력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졌다. 성균관대의 국외 학술지 SCI 게재 논문 수는 상위권 대학 가운데 최고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2008~2018년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에서도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교수 연구력 향상, 시대를 앞서가는 선도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률 1위, 세계 대학 순위 국내 최상위권 유지 등 성균관대의 비약적인 발전에는 숨은 공신들이 많다. 그 가운데 삼성의 이견희 회장이 자리함은 분명하다.

성균관대학교 중동창회

우(0308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71
 TEL (02)741-4171 FAX 741-4170
 이메일 alumni1398@hanmail.net
 http://alumni.skku.edu
 전자신문 i.skku.edu

회 장 윤용택
 상근부회장 금현숙

成大同窓會報

발행인·편집인 윤용택

편집장 권용국 기 자 장서현
 편 집 한국신문연구소 인 쇄 중앙일보
 광 고 썬애드

등록번호 라-6864 창간 1972. 12. 29

본지는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캠퍼스 둘러보기 Close up

야외공연장



코로나가 종식된 후 학생들이 가장 먼저 모여들 곳은 어디일까? 아마 청춘들이 젊음을 노래할만한 탁 트인 공간일 것이다. 자연과학캠퍼스 복지회관 바로 옆 동산의 야외공연장은 동아리 학생들이 버스킹을 하며 캠퍼스의 낭만을 만끽하던 곳. 지금은 텅빈 이곳에 학생들의 신나는 멜로디가 다시 울릴 그 날을 기다리며...
 사진 = 이웅진 학생기자

유학대학 동문 13명, 통큰 후배사랑

모교 유학대학이 지난 여름방학 유학대학 출신 동문 13명(87학번 김정규 외)이 의기투합하여 1억 4천 9백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에 10월, 재학생 전원 112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생활장학금이 지급됐다. 유학대 기부자 동문들은 재학생 후배들이 코로나 19로 의기소침해졌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현실이 안타까워 대학생활을 풍요롭게 지내길 바라는 심정으로 모금한 것이라 기부 배경을 밝혔다. 지금까지의 모금액만으로도 1년 이상 유대(紐帶) 생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모교는 유학대 동문들의 정성에 보

1억4천9백만원 모금... 재학생 전원에 1인당 50만원 생활장학금 지급



퇴계인문관에 구축된 유학대학 87학번 기념강의실.

답하고 모금의 주축이 된 87학번 동문들을 기억하고자 퇴계인문관 31503호에 “유

학대학(儒學大學) 87학번 기념강의실”을 구축하고 “양현(養賢)하는 유대인(紐帶인)”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꾸몄다. 10월 22일 (목) 제막식을 거행하고, 선배 동문과 후배가 온-오프라인의 만남을 통해 학창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며 인생선배로서 진로를 고민하는 후배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학대 동문들은 “혈기 넘치는 학창 시절에 생활비가 부족하여 먹고 싶어도 맘껏 먹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후배들이 학업에 열중하면서 동학들과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동문 간의 끈끈한 정을 확산하면서 모금액을 증대시켜 보다 오랜 기간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계획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학동양학과 재학생들에게

“코로나로 지친 마음 속 오아시스됐으면”

유학과 87학번 동기들입니다. 30년도 훨씬 이전의 선배들이 불쑥 재학 중인 후배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낯설기는 하지만 그래도 글로나마 선배들의 생각을 전하고 싶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2020년 10월 중순경 색다른 장학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활기찬 대학생활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자그마한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20세기에 대학을 다녔던 유학과 선배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취지는 “최소 1년 동안은 유학동양학과 학생에게 소정의 생활비를 지원해주자.”입니다. 1987년에 입학한 선배들은 5공화국이라는 암울한 정치적 상황으로 학업에 전념하지 못했고,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울분과 고뇌로 20대 청춘을 보냈습니다. 그나마 직선제 쟁취로 제도적 민주화의 시금석은 놓았다는 자부심은 있지만, 그마저도 사회정치적 환경이 그리 건강하게 변한 것은 아닌 듯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슬한 사회환경의 변화를 겪으며 이제 그때 그 선배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연배가 되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젊은 시절 소중한 대학의 낭만과 청춘의 시간, 그리고 학업에 전념해야 할 시간을 다른 형태의 치열한 삶과 바꾼 것 같아 아쉬움이 큼니다.

이제 사회에 대한 통찰력도 생기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안목과 여유도 생기던 차에 유학과 87학번 동기들끼리 후배들을 위한 작은 기쁨 한 가지를 실행하는 마음으로 “유학대(紐帶) 생활장학금”을 모금하게 되었고 다른 학번 동문들도 동참하여, 그 첫 번째 실천을 유학동양학과 재학생에게 알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자식이나 대학생들이 생활을 눈여겨보아도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취업 스펙 쌓기, 아르바이트 등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생활장학금이 청춘의 대학생활을 풍요롭게 지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배 여러분이 훗날 부모 나이가 되었을 때 대학 시절의 좋은 회상거리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도 훗날 후배들에게 또다시 베풀어준다면 그건 더욱 값진 일이 되겠지요.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장차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코 후회하거나 기죽지 말고 청년의 浩然之氣/내공을 쌓는 일에 더욱 정진하기 바랍니다. 우리 훗날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儒學大 출신 成均人으로 멋지게 만납시다.

존경하는 유학과 선배님들께

“따뜻한 격려·진심 어린 애정에 감사”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일기장에 연도를 쓸 때 어떤 숫자를 써야 할지 머뭇거리곤 합니다. 2020년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올해의 첫 일기에는 2019라고 잘못 썼다가 지운, 서툰 실수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일 년의 시간 동안 함께해온 추억들이 흔적을 남기는 것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2020년 올해도 두 달 후면 떠나보내야 하지만, 흔적으로 남길만한 추억이 많지 않다는 것에 아쉬움이 납니다. 코로나 19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은행잎이 만개하여 사진의 배경이 되었을 학교 정문의 그 풍경도 기억 속 장면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상은 소중한 것이 되어 더욱 그립게만 느껴집니다. 선배님들이 보내주신 편지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따뜻한 유대감입니다.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서울로 올라와, 군 생활 시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교 근처의 단칸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강해도

비대면 수업이 대다수라 교수들과 어울리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홀로된 생활에 코로나 19 상황까지 겹치면서 마음이 조금씩 시들어 갔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배님들의 편지가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은 지금의 상황에 대한 위로이자 격려로 느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청춘의 대학생활을 풍요롭게 지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는 편지의 문구가 기억에 납니다. 문장을 읽으며 그동안 소홀했던 몸과 마음의 풍요와 여유에 대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며, 항상 ‘나중’을 위한다며 미뤄두었던 ‘지금’의 대학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배웠습니다. 선배님들이 편지에서 보여주시는,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이자 나 자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30년도 훨씬 지난 후배들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먼 훗날 사회인이 되어 지금의 대학 생활을 돌아볼 때, 오늘의 일이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배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가르침을 받은 추억이 떠오를 때 잠시 여유를 가지고 미소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동문 기업탐방 조서윤 (78 화학)/(주)다원디자인 회장

인테리어 업계 ‘미다스의 손’

잘 나가는 기업은 유독 사무실 인테리어를 중시한다. 공간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창의력과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구글, 구찌 코리아, 네이버, 넥슨, 도이치뱅크, 삼일회계법인, JW 메리어트... 이런 굵직한 기업들의 국내 사무실 인테리어를 모두 한 기업이 담당했다. 바로 조서윤 회장(78 화학)이 이끄는 (주)다원 디자인이다. 편집자

좋아하는 일 하기 위해 화학에서 디자인으로 과감히 전공 선회 공간을 아름답게 ‘고객감동’... IMF 위기를 기회로 ‘실력과 승부사’

다원 디자인은 오피스 디자인을 전문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호텔, 리테일, 교육, 복지까지 영역을 다양하게 확대했다. 2013년 베트남 법인을 시작으로 해외사업도 넓혀 현재는 인도, 필리핀, 사이판, 인도네시아에도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창립 25년째인 올해 매출 2,300억 원을 넘었으며 직원도 260명에 달한다. 인테리어 업계의 삼성전자인 셈이다.

그의 이력은 이채롭다. 화학과 인테리어는 연결이 쉽지 않다. 그는 본인의 뜻대로 충실히 살다 보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 자신이 그랬다.

“화학과가 싫지는 않았지만 공식 외우는 게 힘들었습니다. 대학을 다 마치지도 않은 채 미국 유학길에 올랐지요. 인테리어가 좋았고,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다행인지, 운명인지 인테리어와 과학이 아예 별개는 아니었어요. 공간감을 활용해야 하는 인테리어는 예술적 감각뿐 아니라 수학적, 과학적 감각도 필요하더군요”

졸업 후 플로리다와 뉴욕 디자인회사에서 7년 반 동안 실무를 경험하고 귀국한 조 회장은 1995년 7월, 3명의 직원과 함께 다원 디자인을 창업했다. 창업 1년 6개월 만에 IMF라는 거대한 역풍을 맞았지만,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 당시 한국에 쏟아져 들어온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연달아 수주에 성공한 것이다. 물론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창업 이후 지금까지 연속 흑자를 이어온 다원 디자인의 탄탄대로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강점은 단연 ‘디자인’입니다. 기업의 정체성을 최대한 공간 속에 녹여내려고 하지요. 그 부분이 업무의 창의성이 강조된 스마트오피스의 트렌드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철학은 ‘고객의 가치’다. 인테리어나 건축의 디자인이란 결국 우리가 사는 공간을 아름답게 창조해 내는 일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깊이 있는 소통과 공유의 미학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공간’을 고객에게 선물해주려고 노력한다.

기업목표 또한 그 철학에 맞닿아 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앞으로도 평안하게 성장시킨 후 믿음만한 후계자에게 계승하여 지속경영이 이뤄지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경영의 고객은 직원이다. 직원들에게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수많은 파도를 넘어온 조 회장은 전 세계의 경제를 얼어붙게 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번 위기 역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안전이 보장된 범위 내에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요구가 생겨나고 있어요.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동문 변호사들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2천만원 전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소속 동문 변호사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과 모교 후배들의 학업을 장려하고자 함께 뜻을 모아 발전기금 2천만 원을 기탁했다.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전달식이 9월 22일(화)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법학관 김영수기념홀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기부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동문 변호사들인 최경원(73), 오광수(80), 현용선(87), 최종선(90 행정) 동문이 참석했으며, 모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원장, 김연미 교무부원장 등이 참석하여 동문들의 학교 발전을 위한 후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발전기금 전달식이 끝난 후, 소중한 발전기금의 의미를 기리고자 최근 새로 조성한 법학관 B1 층 세미나실(1~14호) 가운데 14호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동문 세미나실'로 명명하고 현판 제막행사를 진행했다.

최경원 동문은 "최근 후배들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볼 때마다 뿌듯하다. 이 기금이 그들의 성장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제대학 동문회 '제9기 멘토링 발대식'

멘티들의 장래희망 따라 매칭 완료



경제대학 동문회(회장 최양수, 78)가 9월 7일(월) 다산경제관에서 제9기 멘토링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멘토로 최양수 경제대학 동문회장을 비롯하여 신홍일(69) 동문, 최규백(76) 동문, 김기연(85) 멘토링 위원장, 최광재(85) 총동창회 사무국장, 임성훈(88) 부위원장, 경제대학 이준상 교수, 이진형 교수와 경제대학 학생들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 전, 재학생(경제, 통계, 글로벌 경제) 멘티들의 장래희망에 따라 멘토를 매칭 완료하고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발대식에 맞춰 실시간 화상접속으로 최현수(97/CJ제일제당 인사기획팀장), 최규백(76/(주)씨에스 부회장) 멘

토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날 8기 멘토링(2019.9~2020.08)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멘토상은 최규백 멘토, 최다 이음상은 강상혁(92) 멘토조가 수상, 공로상은 김상규(15 통계) 외 4명의 재학생이 수상했다.

최양수 회장은 "멘토링이 9년째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동문, 교수진, 재학생의 일치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멘토링을 중단하지 말고,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과 병행 진행된다면 효과가 더욱 증진되어 재학생 후배들의 사회진출과 모교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격려했다.

총동창회 '지역동문회 탐방 프로젝트'

대전·세종시 동문회 찾아 '소통의 시간'



총동창회가 [지역동문회 탐방 프로젝트] 첫 번째 동문회로 10월 21일(수) 대전·세종시 동문회를 방문했다. 총동창회에서 금현숙 상근부회장, 최광재 사무국장이, 대전·세종시 동문회에서 정상직(무역대학원/우송대학 총장) 대전·세종시 동문회장, 양병중(81 법학/법무법인 유앤아이 대표 변호사) 대전·세종시 동문회 부회장, 지성훈(83 토목공/(주)장 맥건설 대표이사) 대전·세종시 동문회 부회장, 박상민(99 영문/정보철강(주) 부대표) 기획국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총동창회의 프로젝트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대대적인 행사가 여의치 않

은 상황을 고려하여 총동창회가 전국의 동문회를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 규모로나마 적극적인 소통의 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지난 6월 총동창회에서 진행한 '단위동문회 회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발의되었던 내용과 대전·세종시 동문회의 활동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유되었다.

정상직 대전·세종시 동문회장은 "총동창회에서 직접 대전을 방문하셔서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니 감회가 남다른 것 같다. 더욱 발전하는 지역동문회로 나아가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제1회 성군가족 당구대회

성군가족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당구대회를 다음과 같이 갖고자 하오니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0년 11월 28일(토) 오전 10:00~
- 장소 : 명륜동 아카라카(구 에이스/1975년 개장) 당구장 (16강전 ~ 결승)
16강전 이하 : 대진표에 따라
합의된 시간 장소에서 각 동문회 별 자체 진행
- 참가비 : 없음
- 문의 및 접수 : 최광재 사무국장
☎ 010-8978-7768, 카톡 및 문자 가능
이메일 : alumni1398@hanmail.net
- ※ 참가접수 후 반드시 접수확인 부탁드립니다.

특별기고 오수길 (87 행정)

87 동기회, 10월의 춘천을 걷다

계절이 좋은 주말이면 함께 걸으며 세상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교류해온 우리 87 동기회는 지난 10월 10일(토) 춘천으로 향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실로 오랜만에 열린 이번 행사는 강원대학교에 재직 중인 박영철(87 유전공) 동문과 강원도농업기술원의 최강준(87 유전공) 동문이 기획하였고, 총 14명의 동기들이 각지에서 모여 들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1단계로 낮아지기도 했지만, 소양강 둘레길을 걸으며 지친 일상도 치유하고 피톤치드로 바이러스로 무장된 스트레스도 물리칠 심산이었다.

우리는 소양강 스카이워크 인근 짬뽕집에서의 맛있는 점심을 시작으로 소양 2교와 세월교를 순환하는 17.3km를 5시간 동안 천천히 걸었다. 보폭에 따라 차이는 있었겠지만, 무려 3만 보 가까이 걸은 셈이다. 걷는 내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기도 하고 오래간만에 즐기는 그림 같이 펼쳐지는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동문들과 나누다 보니 그리 먼 거리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특히 둘레길

을 걸을 때는 박영철 동문이 소양강에 자리 잡은 백로와 민물가마우지, 그리고 무당거미나 대왕 거미의 생태에 대해 알기 쉬운 해설을 곁들여 줌으로써 더욱 풍족

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후 서울에서 4명의 동기들을 직접 운전해서 합류시킨 이호영(87 중문) 동문은 닭갈비와 함께 곁들일 음료를 참느라 못내 아쉬워했다. 삼성물산을 퇴직한 이후 처음으로 행사에 참석한 이동우(87 전자공) 동문은 새로운 구상을 위해 곧 나서게 될 국토종단길마다 멋진 사진을 보내주기로 약속했다. 4명이나 모인 유전공학과 동문들은 하루로는 미처 이야기 보따리가 다 풀리지 않아 다음 날에야 긴 여정을 마쳤다.

87 동기회는 2018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이 오면 풍광 좋은 곳을 함께 걸으며 학창시절 MT를 건강한 형태로 승화시켜 동기회의 활성화를 도모해왔다. 올해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소규모 행사로 진행된 관계로 아쉬움이 남았지만, 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는 계속될 것이다.

동문시단

귀가(歸家)

김덕영 (63 경영)

곁에 있던 친면(親面)들도 하나, 둘 떠나가고
이제 나 자신이 스스로의 의지처임을
거듭 새긴다

모든 것들은 항상 머물지 않고
덧없이 지나가 버리는 것

지금은 오래 길들어진 것들과 작별하고
자아의 빈집으로 돌아와야 할 때

형벌 같은 고독을 견디어 내는 건
자유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엄중한 댓가임을 안다

영혼을 잃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
그 속절없는 굴레에서 벗어나
나에게도 돌아오는 길은
모처럼의 흥가분한 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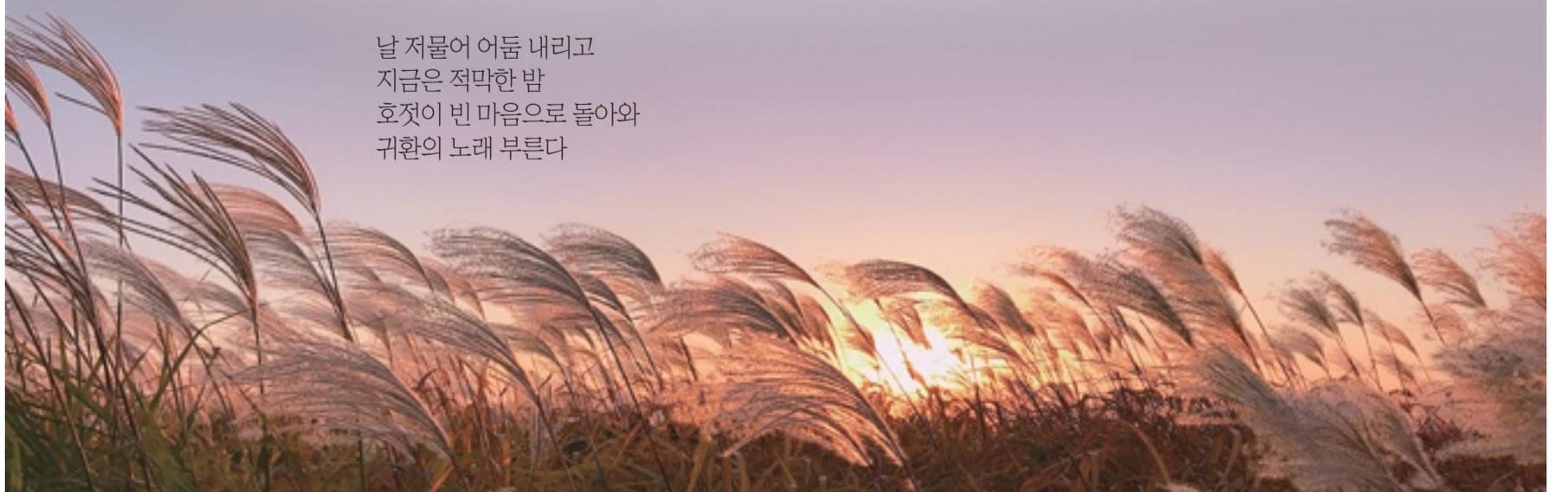
날 저물어 어둠 내리고
지금은 적막한 밤
호젓이 빈 마음으로 돌아와
귀환의 노래 부른다



작가 소개

한국시인협회 회원
부산시인협회 회원

김덕영 시인은 다재다능한 우리시대 호프이자 사업가, 예술가이다. 비전공 테너 성악가로 20여회 공식 연주회를 가졌으며, 첫 시집 『우물가 느티나무 있는 풍경』 출간 이후 『未知的 江가에서』, 『욕망의 江을 지나』, 『계절의 江가에서』, 『그리운 날에 부침』, 『다시 부르는 노래』, 최근 『귀가』를 발표했다.



글로벌리더학부 'Global Leaders Wing' 오픈

모교 사회과학대학 글로벌리더학부는 10월 22일(목) Global Leaders Wing 오픈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동렬 총장을 비롯하여, 유흥준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부총장, 엄명용 사회과학대학장, 김동욱 교무처장, 이동환 법인국장, 글로벌리더학부 교수 및 학생들이 참석했다.

기존 강의실 전면 리모델링... 학생 라운지·세미나실 등 재탄생

법학관 2층에 위치한 Global Leaders Wing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진행되는 Edu-Plus 사업을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공간으로, 기존 강의실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학생 라운지, 세미나실, 바테

이블 등 학교 구성원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아울러 행사에서는 엄명용 학장이 창의적·통합적 지식을 갖춘 공공사회 리더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글로벌리더학부 VISION

2.0'을 소개하고, 커리큘럼 혁신, 브랜드 차별화, 성과 창출을 위한 학부의 실행전략을 공유했다. 글로벌리더학부는 공간 개선을 시작으로 인재양성 메카로 자리 잡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지식사회를 선도하는 최고의 공공분야 학부로 발돋움하기 위한 VISION 2.0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교 '산업기술거점센터 육성시범사업' 최종 선정

모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0년 산업기술거점센터 육성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대학연구소가 R&D를 통해 지속적으로 원천기술을 개발·축적(1단계)하고 이를 기업에 공급·확산할 수 있도록 R&D 지원과 공급기지 체계를 구축(2단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모교는 '복합재료 동시 설계 거점센터'라는 주제로 본 사업 지원대상 1순위로 선정되어 1단계에서 2.5년 간 약 52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게 되며, 2단계에서 4년에 걸쳐 국고를 추가 지원받는다. 모교 기계공학부 서종환 교수를 총괄책임자로 하여 거점센터에는 기계 및 화공/고분자학부 전임교원 9명, 산학협력 중점교수 5명이 참여하고, R&D협력기관 6개(금호

1단계 2년6개월간 52억 국고지원... 기계공학부 서종환 교수 총괄책임



타이어, 덕양산업, 한화솔루션, 단석산업, 다쏘시스템코리아, 한국엠에스씨소프트웨어)과 소재, 부품, 소프트웨어 분야 등 총 71개의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게 된다.

'복합재료·부품 동시설계' 기술은 부품 개발 시 복합소재·부품 및 제조를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는 방식으로, 본 기술이 산업에 공급·확산된다면 보다 획기적으로 부품성을 향상시키고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괄책임자 서종환 교수는 "본 거점센터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여 향후 국내 복합소재 및 부품의 원천기술을 관련 산업에 공급할 수 있는 공급기지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모교 캠퍼스타운사업단 '2020년 제3차 지역상생협의회'

예술·문화·관광 창업 활성화 모색

모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이 10월 21일(수) 서울 종로구 킹고스타트업스페이스에서 2020년 제3차 지역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전체 회의 이후 세 번째 열린 창업육성분과위원회 회의로, 지역 내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생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모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은 지난 3년 동안 단위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종합형 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 지역상생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상생 부문에서도 지역창업을 중심으로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 특별히 노력을 가

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갖춰진 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업 및 지역상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경환 모교 캠퍼스타운사업단 단장은 "지역상생이라는 하나의 큰 축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상생협의회를 구성했다. 그 중에서도 창업육성분과위원회의 모임으로, 종로구 지역산업이 숙박, 음식, 도소매, 예술, 문화, 관광 분야인 만큼 지역창업 활성화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업단의 미션이자 철학이다. 창업육성분과위원회는 미션을 수행하는 핵심 기구인 만큼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빅데이터 활용 소비자·마켓 트렌드 분석 전문가 육성

융합정보디자인학과 내년 3월 신설

모교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기반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와 마켓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미래 고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디자인 기획과 창업 인력 양성을 목표로 예술대학 내 융합정보디자인학과를 내년 3월 신설한다고 밝혔다.

융합정보디자인학과는 일반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급변하는 지식 환경의 트렌드에 발맞춰 데이터 분석, 정보디자인 그리고 앙트레프레너십이 융합된 혁신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학생 및 현업 종사자를 위해 주중 저녁 및 주말에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며, 대학원생의 연구력 제고 방안으로서 각종 경진대회, 산학프로젝트, 국내

외 학술지 논문 게재 등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모교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창업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 전했다.

융합정보디자인학과 정지숙 대표 교수는 "현시대의 디자인 인력에게 있어 빅데이터 활용 능력은 필수적이다. 학부와 현업에서 습득한 디자인 감성의 효용을 증폭시킬 수 있는 과학적 분석력을 겸비하여 지속가능한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디자인 분야에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학과 신설 배경에 대해 전했다.

※문의: 예술대학 융합정보디자인학과 02-760-1429



2020학년도 2학기 김용석 장학금 수여식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신입생 수혜

모교 정보통신대학(학장 이준호 교수)은 10월 13일(화), 정보통신대학 회의실(2113호)에서 2020학년도 2학기 김용석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보통신대학 이준호 학장, 송장근 부학장, 김용석 교수가 참석하여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용석 장학금은 제자 사랑, 후배 사랑의 마음으로 김용석 교수가 기부한 장학금으로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신입

생 가운데 학업 의지와 성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이번 학기에는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이경진 학생이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앞으로 정보통신대학에서는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김용석 장학생을 매년 3명씩 3년간 선발할 예정이라 전했다.



2020학년도 2학기 석담장학금 수여식

교육학과 후배 5명 '꿈의 종잣돈'

사범대학(학장 김재현 교수)은 2020학년도 2학기 우수한 교육학과 학생들에게 석담장학금을 전달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장학금 수여식은 불가피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석담장학금은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이완근(61 교육) 회장이 교육학과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1학년도에 설립한 장학금으로, 매 학기 교육학과 학생 5명을 선발하여 1명당 200만 원씩 지

급하고 있다. 석담장학금의 기부금액은 현재까지 총 2억 원,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은 총 100명이다. 이번 학기에는 권민지, 김유림, 이은수, 정은수, 조수현 5명의 교육학과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석담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은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개최되지 못한 아쉬움을 표하며, 석담 이완근 회장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2020학년도 2학기 수일장학금 전달식

로스쿨생 2명에 각각 500만원 지급

모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일환 교수)은 9월 22일(화) 15시 법학관 김영수 기념홀에서 2020학년도 2학기 수일장학금 전달식을 하고 법학전문석사과정(이하 '로스쿨')생 2명에게 각 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수일장학금은 석수경 동문(73 법률/㈜수일통상 대표 겸 수일장학회 이사장)이 출연한 장학금으로 2014학년도 1학기부터 매 학기 로스쿨

생 2명에게 각각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0학년도 2학기 수일장학생은 박제민(3학년), 유경진(2학년) 학생이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김일환 원장이 석수경 동문의 뜻을 담아 장학금을 대신 전달하고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장학금을 수혜받은 두 학생은 "보다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더욱 학업에 힘써서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석수경 동문을 본받아 후배들에게 베풀 수 있는 선배가 되겠다"며 각오의 말을 전했다.



2020학년도 2학기 이규용장학금 전달식

미래의 법조인에 '희망과 용기' 응원

모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일환 교수)은 9월 22일(화) 법학관 이규용기념 강의실에서 2020학년도 2학기 이규용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원장, 박광민 전원장, 지성우 학과장, 현소혜 주임교수가 참석하였으며, 이규용 회장을 대신하여 김일환 원장이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규용장학금은 이규용 회장(72 법률/㈜나자인 회장)이 모교 출신 로스쿨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출연한 이규용장학기금을 토대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학년당 학생 1명(총 3명)에게 학기당 500만 원(연간

1,0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규용 회장은 이규용장학기금은 물론 2019년 12월 10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으며, 법학관 지하 2층에 이규용라운지를 조성하여 로스쿨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등 우리 대학 로스쿨이 국내 최고의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성장해나가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2020학년도 2학기 이규용장학금 대상자는 주은정, 박진명, 강원웅 학생이며, 각 5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세 학생은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이규용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하여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모교·인텔코리아, AI 인재양성 한마음

교육·연구 산학협력 MOU 체결

모교와 인텔코리아(대표 권명숙)의 AI 인재양성 및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연구 산학협력 MOU 체결식이 10월 14일(수) 모교 자연과학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SKK-Intel AI Class 공동개발 및 운영 ▲AI 연구 인프라 구축 협력 ▲AI 분야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교는 지난해 11월, 학생 성공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AI 연구와 교육 추진이라는 AI 비전을 선포한 바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교는 전교생의 인공지능 기

본소양(AI literacy) 함양을 위해 '문제해결·알고리즘, 컴퓨팅 사고·SW코딩' 두 과목을 필수 교양으로 지정하고, '데이터사이언스', '인포매틱스' 등 융합 전공을 개설했다. 또한 AI/IoT 교육 전용 실습실을 갖춘 모교 정보통신대학 산하 AI/IoT 교육지원센터를 올해 6월 설립하였으며, AI/IoT 교육지원센터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SKK-Intel AI Class를 공동으로 주관해 운영할 예정이다.

신동렬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AI 최신 지식과 우수한 연구 환경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인텔코리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성공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대학, IoT 시스템반도체 센터 개소



전문성·창의성 겸비 설계인력 양성

모교 정보통신대학이 10월 7일(수) 4차 산업의 핵심인 사물인터넷(IoT) 시스템반도체 인력 육성사업을 주도할 센터 개소식을 했다. 이번 사업은 국내 대학(이하 센터)이 소속 석·박사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분야의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시스템반도체 고급 설계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모교 컨소시엄(IoT Semiconductor Research Center, ISRC, 총괄책임자: 정보통신대학 이강운 교수)으로 수행하며, 센서 및 신호처리, 메모리, 보안, 시스템 응용 등 기능 단위로 세분화한 7개 분야에 대한 PBL 교육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6년간 석사 100

명, 박사 40명 등 총 140명 이상 배출할 예정이며, 연 16억 원씩 총 96억 원 수준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모교 컨소시엄에는 모교 포함 대학 5개(성균관대·한양대·경희대·인하대·충북대), 기업 28개(삼성전자·SK하이닉스·실리콘웍스·실리콘 마이터스·어보브반도체 등), 연구소 7개(한국나노기술원·성남산업진흥원·전자부품연구원(KETI)·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충북도청 등)가 함께 한다.

총괄책임자 이강운 교수는 "시스템반도체는 다품종 맞춤형 제품, 세트업체 요구를 충족시킬 고급인력이 경쟁력을 좌우한다.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핵심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수동정

'포스코사이언스펠로' 선정



고아라 의학과 교수, 신광민 화학과 교수, 이진욱 나노공학과 교수, 정재훈 생명과학과 교수

가 2020년 9월 10일(목) 포스코청암재단에서 선정하는 제12기 '포스코사이언스펠로'로 선발되었다.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은 국내에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포스코청암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스코사이언스펠로로 선정된 신진교수는 2년간 총 1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의 포스코사이언스펠로로 선정된 모교 교수들은 각각 고효율 장수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이진욱 교수), 식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물리 화학적 분자기전 연구(정재훈 교수), 장내 미생물의 약물에의 적응을 기반으로 한 정밀의학 플랫폼 구축(고아라 교수), 카이랄 니켈-하이드라이드 기반 다중축매 시스템 개발 및 이를 이용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의 비대칭 알킬화 반응 개발 연구(신광민 교수)를 연구주제로 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화고분자학술상' 수상자에 선정



김덕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교수가 한화토탈이 제정하는 '한화고분자학술상'의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화고분자학술상은 한국고분자학회 주관하고 한화토탈이 제정하는 상으로 2005년부터 매년 국내 고분자 과학 발전에 기여한 과학자를 선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고 이온전도 및 장기 안정성을 지닌 고분자 전해질막의 제조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연료전지 상업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여학생 공학교육자상' '우수강의 교수상' 각각 수상



박준현, 황성호 기계공학부 교수가 한국공학교육학회가 수여하는 '2020년 여학생 공학교육자상'과 '2020년 우수강의 교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시상식은 9월 17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수상자만 참석한 채 시행되었다. 박준현 교수는

공과대학의 대표 교과목인 공학수학 수업에서 플립트 클래스 교수법을 개발·적용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성호 교수는 여성공학인재양성(WB-UP) 사업단장으로서 스마트융합교육플랫폼인 'SMART-School'을 구축·운영하여 여학생들의 진로를 스마트카 분야까지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제3회 윤광열 약학상' 수상자 선정



박은석 약학대학 교수가 제13회 윤광열 약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은석 교수는 지난 25년 간 학계에 종사하며 국내 제약 산업계에 우수기술과 전문인력 확보에 매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박 교수는 다공성 위체류 약물전달시스템과 의약품 연속제조공정 국내 도입 등 개량신약 개발에 주요 성과를 올렸으며, 최근 10년간 SCI 논문 49편을 발표하고 5건의 관련 특허를 등록하였다. 한편 '윤광열 약학상'은 국내 약계의 학술발전에 기여하고 10년 이상 연구업적이 탁월한 회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올해 13년 차를 맞이했다.

나노재료 기반 치료 후보물질 개발... 코로나 중증자 '희소식'



박천권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 19 및 패혈증(sepsis) 환자의 중증도를 선별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한 나노재료 기반 범용 치료후보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중증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급성 호흡기 증후군, 폐렴, 패혈증으로까지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에 10월 20일(화) 온라인 게재되었다.

평택시

Super'ning

슈퍼'닝

평택 농산물 브랜드

2016, 2017, 2018 소비자평가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3년 연속 수상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부문 대상 수상

K-Inno Pharm

보건의료부 국공
혁신형 제약기업

대화제약 | 주

“Healthful World, Dynamic DAEHWA!”

‘생명존중과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

대화제약(주)는 인류건강의 미래를 밝히 줄 생명존중의 철학과 환경을 생각하는 자연친화적 기업, 제약기술을 선도하는 진보된 기술력을 기업의 3대 이념으로 진화하는 인간, 환경, 기술에 대한 변화를 선도하고, 특히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참된 제약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
시
더
가
까
이

aic 애경그룹

 sedailythumb
 sedaily.com
 sedaily.com

경제를 보는 눈 서울경제가 함께합니다



서울경제
SEN 서울경제TV
SIGNAL
 Decenter
 라디오

신용보증 **해드림** 신용보증재단

생각보다 더 가까이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증합니다

KOREG 신용보증재단연합회

강원 www.gwsinbo.or.kr	서울 www.seoulshinbo.co.kr
경기 www.ggcf.or.kr	울산 www.ulsanshinbo.co.kr
경남 www.gnsinbo.or.kr	인천 www.icsinbo.or.kr
경북 www.gbsinbo.or.kr	전남 www.jnsinbo.or.kr
광주 www.gjsinbo.or.kr	전북 www.jbcredit.co.kr
대구 www.ttg.co.kr	제주 www.jejusinbo.co.kr
대전 www.sinbo.or.kr	충남 www.cnsinbo.co.kr
부산 www.busansinbo.or.kr	충북 www.cbsinbo.co.kr

★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바로 상담하십시오

신용보증재단 고객 서비스

- 
신용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유동을 위한 신용보증 서비스
- 
신설팅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창업 및 경영개선 신설팅 서비스

신용보증재단연합회 www.koreg.or.kr

보증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588-7365**

자세한 사항은 검색창에 신용보증재단



혁신신약 개발에 도전합니다

생명존중과 개혁정신의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달리는 70여 년의 쉽지 않았던 시간들. 쉬운 길보다 생명을 살리는 치료제 개발을 위해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국내 최초 수역제 개발부터 암, 아토피, 탈모, 통풍치료제의 연구개발까지 JW는 '인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혁신신약 개발'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인이 건강하고 행복할 그날까지,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JW 올딩스
JW 중외제약
JW 신약
JW 생명과학
JW 메디칼
JW 바이오사이언스
JW 생활건강

JW는 공익재단인 '중외학술재단'을 통해 중증장애인(이)로 구성된 '명호의 소리' 협정단체 2003년 사회적 후원 활동을 제공하고, 지난 2017년부터 장애인 작가 대상 출판진흥공모전 'JW Art Awards'를 운영하여 등 록자에 이어 미술분야까지 지원하여 예술·문화 분야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스마트금융센터 1588-6655
www.hmsec.com

현대차증권

고객님과의 신뢰와 안정감을 바탕으로
고객 자산가치 증대를 지향합니다.
10년, 20년을 넘어 고객과 함께 하기 위해
미래를 향해 씩니다.

※ 투자전 설명 청취 ※ 원금손실 가능 ※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용 아님 ※ (해외)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가능
※ 주식수수료는 0.1544604%+1,500원~0.4944604%, 홈페이지 참고 ※ 현대차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04892호 (2020-10-21 ~ 2021-10-20)




광성오토

대표
손성근 (법학과 90)

KANU

이 카페는 24시간 오픈
여기는 카누입니다

OPEN
24 HOURS

KINTEX
shows the world

MICE로 연결된 세계, 킨텍스

사람과 사람, 아이디어와 기술, 산업과 문화가 연결되고
융합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무대
세계와 미래를 연결하는 글로벌 맘플러스 전시장
킨텍스에서 세상의 미래가 먼저 시작됩니다.

제갈전시장 건립을 통해
순천시면적 178,000㎡, 회의 면적 19,403㎡로 확대

103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킨텍스 Tel. 82-31-810-8122 cklee@kintex.com www.kintex.com

천혜의 자연,
비옥한토양에서 자란

의성

“내 가족을 위한
최고의 먹거리입니다”

의성군

Google play App Store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녹톡' 검색

마음의 도르르를 얼자

다양한 오디오 콘텐츠로 가득한 “녹톡(Knock Talk)”
답답한 마음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연대중고, 이단 사이렌, 떠돌이, 금주의 말씀, 사랑의 로드쇼, 노크톡, 연예인, 예술가, 목회자

GOOD TV ■ 위성TV | KT 스카이라이프 193번 ■ IPTV | KT o!lehtv 234번 | SK BTV 303번 | LG U+ 273번
■ 케이블TV | CJ 헬로 289번 | 티브로드 224번 | 딜라이브 303번 | HCN 545번 | NIB남인천방송 406번

녹톡 문의전화
1522-5221

동정

한국신문협회 부회장 선임



이종환(76 정치외교) 동문이 한국신문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이 부회장은 서울경제 편집국장·부사장·대표이사 사장·부회장, 서울경제TV 대표이사 사장, 한국신문협회 이사 등을 지냈다. 부회장의 임기는 2022년까지다.

국립무형유산원 신임 원장 임명



채수희(92 정치외교) 동문이 국립무형유산원 신임 원장으로 임명됐다. 채 신임 원장은 공직에 입문한 후 문화재청 국외문화재 팀장, 발굴제도 과장, 정책총괄 과장, 운영지원 과장 등을 역임했다.

경기도 신임 경제기획관 임명



정도영(94 경제) 동문이 경기도 신임 경제기획관으로 임명됐다. 정 경제기획관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9년간 근무하다 지난해 9월부터는 부산시 재정경제보좌관으로 활동했다.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쟁점 및 개선 방안' 등을 저술하면서 '재정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0 아시아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 선정



황혜진(00 법학) 동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전문 매체인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2020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ALB Asia 40 Under 40 2020)'에 올랐다.

ALB는 "다양한 금융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고객들에게 집중력이 뛰어나고,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황 변호사는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을 거쳐 2008년 변호사 개업 후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했다.

예금보험공사 신임 감사 선임



이한규(일반대학원) 동문이 예금보험공사 신임 감사로 선임됐다. 이한규 신임 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전문위원,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2년이다.

신간 안내

당신을 만나 참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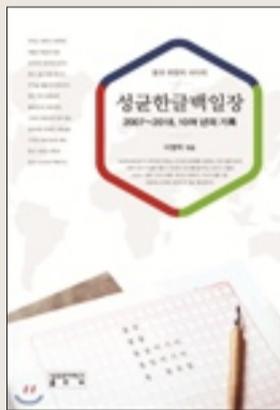
가갑손(58 법률)



현대사회는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인터넷은 그러한 양상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공간 가운데 하나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 역시 온라인을 통하여 서슴없이 생각을 나누고 열띤 논쟁을 제시하는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다. 『당신을 만나 참 좋았다』는 저자가 8년간 페이스북을 통해 기록한 단상을 옮겨 놓은 수필집이다.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정치, 경제, 경영,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범위를 망라하며 강렬한 비판의식으로 점철된 저자의 사고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

성균한글백일장 / 이명학 교수의 어른이 되어 처음 만나는 한자

이명학(74 한문교육)



『성균한글백일장』은 2007~2018년 동안 성균관대학교에서 주관해온 '성균한글백일장'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록집으로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편찬되었다. 『이명학 교수의 어른이 되어 처음 만나는 한자』는 수십 년간 모교에서 살아있는 한문 교육을 실천

해온 이명학 교수가 전하는 일상 한자어 모음집이자 별다른 지식 없이도 술술 읽으며 한자를 익히는 실용 안내서다. 단순히 이론으로 암기하는 언어가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되는 익숙한 표현을 통해 우리가 흔히 주고받는 낱말들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고 있다. 어른이 '처음' 읽고 아이들에게 '다시' 권하기에도 더없이 충분한 책.

불안은 감각을 잠식한다

안상혁(영상학과 교수)



본서는 불안이 현대 대중문화를 탐구하는 중요한 단초로 보고, 불안이라는 의미를 개척한 덴마크 사상가 키에르케고어(Søren Kierkegaard, 1813~1855)의 사상을 재해석하여 대중문화 관점에서 불안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불안 속에서 감각은 인간과 세계를 가로막는 장벽들인 철학적 반성과 합리적 언어의 개념성을 허물어뜨리고 인간의 삶에 대한 직접성을 환기시키면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고

- 박 춘(61 국문) 본인 10월 5일(월)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 김봉섭(80 섬유공/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연구교수) 빙모 10월 26일(월) 삼육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 문순희(84 영문) 시모 10월 7일(수) 아주대학병원 장례식장 1호실
- 한성희(86 전기공/파워일렉트로닉스 대표) 빙부 10월 22일(목)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10호실
- 장익순(88 생명과학) 본인 10월 10일(토) 삼육의료원 서울병원추모관 11호실
- 이진우(경영전문대학원) 부친 10월 5일(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결혼

- 김진엽(59 상학/(주)신성솔라에너지 감사) 딸 10월 10일(토) 강남엘타워 오르체홀
- 김진기(경영대학원/(주)세지 대표이사 회장) 아들 10월 24일(토)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 이재희(경영대학원/(주)예락 회장) 아들 10월 25일(일) 엘리어나호텔

동문 소식을 전해 주세요

총동창회 홈페이지
alumni.skku.edu

연회비 3만원 1년에 단 한번입니다

입금 계좌 안내

예금주 :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우리은행 1006-981-001004
 KB국민은행 031601-04-110388
 기업은행 002-069553-01-011
 KEB하나은행 274-910005-76804

지로로 입금하신 분들은 입금 확인이 결제일보다 2~3일,
 핸드폰 또는 카드로 결제해 주신 분들은 입금 확인이
 결제일 보다 15~20일 더 소요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성함과
 입학년도(또는 전공학과)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회비·연회비

2020년 9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8명의 동문님께서 평생회비 486만원을 110명의 동문님께서 연회비 337만원을 납부해 주셨습니다.

평생회비 송한건(65·도서관) 36만원 이수현(79·토목공) 50만원 김동일(81·기계설계) 50만원 진승호(86·전자공) 70만원 이재형(87·전기공) 70만원 강성민(89·약학) 70만원 김향선(90·무용) 70만원 마대현(05·러문) 70만원	최호범(59·법률) 서상열(60·법률) 정인결(61·법률) 김영길(66·법률) 이승재(79·법학) 윤서욱(85·법학) 전재근(02·법학)	사회과학대학 안재현(72·정의) 김철섭(01·정의) 배기도(60·정치) 양효석(60·정치) 권영소(61·정치) 은희목(60·행정) 김두성(68·행정) 유승안(68·행정) 차신근(90·행정) 박찬수(02·행정)	경제대학 이강석(61·경제) 이성배(70·경제)	사범대학 윤춘섭(55·교육) 김병주(81·교육) 김연경(82·한교) 정성대(75·체교)	자연과학대학 김기석(81·수학) 엄기룡(69·화학) 최정섭(69·화학) 임재문(95·물리) 정의수(87·생명과학) 조용훈(90·생명과학)	공과대학 윤해원(67·화공) 변한주(81·화공) 김기준(81·건축공) 김재오(81·건축공) 나영철(81·건축공)	약학대학 김태수(56·약학) 이완상(56·약학) 홍성분(62·약학) 김은혜(63·약학) 윤윤자(65·약학)	교육대학원 김시열 국기전력대학원 손필현 국정전문대학원 곽찬 이근상 디자인대학원 이정진 무역대학원 김천규 언론정보대학원 조우영 유학대학원 박영애 일반대학원 강석연 강선규 박경원	스포츠과학대학 김승철(70·체육) 경영대학원 이종석 정영덕 경영전문대학원 박동식 이진우 경영전문대학원(MBA) 송성환 경영행정대학원 서관석 이재필 이한영	손주순(70·약학) 정중권(70·약학) 배덕규(73·약학) 박혜영(74·약학) 손석기(75·약학) 냉화무(76·약학) 이용재(79·약학) 한후경(99·약학)
---	--	---	---	---	---	--	---	--	---	--

■ 임원분담금

2020년 9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55명의 임원님께서 임원분담금 2,100만원을 납부해 주셨습니다.

고문		자문위원								부회장																								
	서정돈(유학대학원)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 교수 성균관대학교 18대 총장 前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이사장 30만원		정규상(72·법률) 하정학술장학회 이사장 성균관대학교 명예총장 성균관대학교 20대 총장 30만원		김병두(55·교육)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지문위원 30만원		이완상(56·약학) (주)삼우메디안 대표이사/회장 30만원		가갑순(58·법률) (주)메트로패밀리 대표이사 회장 30만원		김성태(58·화학) 전 국방기술품질원 경인분소장 30만원		고덕환(59·법률) 도서출판 삼영사 회장 30만원		원규섭(59·경제) 전 YKK(한국) 회장 30만원		송보영(61·정치) 전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사무총장 30만원		이원중(61·행정) 전 대통령비서실장 전 충북도지사 전 서울특별시시장 30만원		박경진(68·전기공) (주)부광네트워크 대표이사 100만원													
	우성윤(75·중문) (주)한이G&B 대표이사 사장 100만원		김효영(76·영문) (주)제이티 대표이사 100만원		송재혁(79·금속공) (주)파코코리아인더스 대표이사 100만원		남승우(81·금속공) 나무너 사장 100만원		양병종(81·법률) 법무법인 유앤아이 대표 변호사 100만원		이경범(81·건축공) (주)희상건설 대표이사 100만원		이성기(81·토목공) 전 (주)대우건설 본부장 100만원		도재승(82·경영) GS건설 고문 100만원		윤웅섭(83·회공) (주)에이치케이글로벌 이사 100만원		김용현(86·농기계공) (주)인디하이코 대표이사 100만원		정의수(87·생명과학) (주)단정바이오 대표이사 100만원													
	백주호(경영대학원) (주)삼진전자자재 전무 100만원		이상간(경영장대학원) 서안컴텍(주) 대표이사 회장 100만원	상임이사		· 장인원(61·경제) 신안산대학교 이사장 30만원	· 조대식(72·무역) 학원운영 대표 30만원	· 손석기(75·약학) 소록도병원 약제팀장 20만원	· 이형욱(75·선방) (주)객석컴퍼니 편집인 30만원	· 박재명(81·불문) 명식품 대표 30만원	· 박중권(81·회공) (주)브이티컴퍼지트 대표 30만원	· 진용두(82·법학) (주)장안유업 대표이사 30만원	· 이영해(84·무역) 전 현대아산 대표이사 30만원	· 지홍근(84·화학) H&A 파마켄 연구소장 30만원	· 윤서욱(85·법학) 법무법인앤드마크 대표변호사 30만원	· 이승호(85·법학) 법무법인(유) 한별 변호사 30만원	· 박영남(86·중문)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상임이사 30만원	· 육성민(87·유전공) 기술신용보증기금 청주지점 30만원	· 윤일봉(89·기계설계) (주)삼성엔지니어링 인사팀 부장 10만원	· 김대섭(경영대학원) (주)대성MDI 영동지역 본부장/사무이사 30만원	· 임봉숙(경영대학원) 지에이코리아 이담지점 대표 10만원	· 정연홍(경영대학원) 전 명진당약국 대표 30만원	· 홍윤이(82·약학) 정다운약국 10만원	· 고성규(83·법학) 전 법무법인 자유로 변호사 10만원	· 김용석(84·정외)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10만원	· 문순희(84·영문)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10만원	· 박윤화(84·전기공) (주)대경ENC 이사 10만원	· 한성희(86·전기공) 파워일렉트로닉스 대표 10만원	· 안현우(90·영문) 한국전력공사 10만원	· 유해열(93·사회복지) 전 근로복지공단 동부지사 차장 10만원	· 김용석(96·바이오메카트로닉스) 신한금융투자 법안금융상품영업본부 차장 10만원	· 송인옥(04·경영학부) 정현법률사무소 변호사 10만원		
이사		· 조정희(72·화학) 전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본부 본부장 10만원	· 임홍섭(77·행정)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평가사 10만원	· 송명연(79·수교) 대성중학교 교사 10만원	· 마성호(81·건축공) (주)एम중합건축사무소 대표이사 10만원	상임이사		· 장인원(61·경제) 신안산대학교 이사장 30만원	· 조대식(72·무역) 학원운영 대표 30만원	· 손석기(75·약학) 소록도병원 약제팀장 20만원	· 이형욱(75·선방) (주)객석컴퍼니 편집인 30만원	· 박재명(81·불문) 명식품 대표 30만원	· 박중권(81·회공) (주)브이티컴퍼지트 대표 30만원	· 진용두(82·법학) (주)장안유업 대표이사 30만원	· 이영해(84·무역) 전 현대아산 대표이사 30만원	· 지홍근(84·화학) H&A 파마켄 연구소장 30만원	· 윤서욱(85·법학) 법무법인앤드마크 대표변호사 30만원	· 이승호(85·법학) 법무법인(유) 한별 변호사 30만원	· 박영남(86·중문)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상임이사 30만원	· 육성민(87·유전공) 기술신용보증기금 청주지점 30만원	· 윤일봉(89·기계설계) (주)삼성엔지니어링 인사팀 부장 10만원	· 김대섭(경영대학원) (주)대성MDI 영동지역 본부장/사무이사 30만원	· 임봉숙(경영대학원) 지에이코리아 이담지점 대표 10만원	· 정연홍(경영대학원) 전 명진당약국 대표 30만원	· 홍윤이(82·약학) 정다운약국 10만원	· 고성규(83·법학) 전 법무법인 자유로 변호사 10만원	· 김용석(84·정외)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10만원	· 문순희(84·영문)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10만원	· 박윤화(84·전기공) (주)대경ENC 이사 10만원	· 한성희(86·전기공) 파워일렉트로닉스 대표 10만원	· 안현우(90·영문) 한국전력공사 10만원	· 유해열(93·사회복지) 전 근로복지공단 동부지사 차장 10만원	· 김용석(96·바이오메카트로닉스) 신한금융투자 법안금융상품영업본부 차장 10만원	· 송인옥(04·경영학부) 정현법률사무소 변호사 10만원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회비납부

동창회비는

-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
- 동문 네트워크 강화 위한 <성대동창회보> 발행
- 동문 결속과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 국내외 단위동문 지원 및 모교 각종 지원사업에 소중히 쓰입니다.

동창회비

- 연회비 : 3만원
- 평생회비 : 36만원(71학번) / 50만원(72학번~81학번) / 70만원(82학번~)

임원분담금

- 고문 : 임의
- 명예회장 : 300만원
- 회장 : 500만원
- 자문위원 : 30만원 이상
- 감사 : 100만원
- 상근·수석부회장 : 100만원
- 부회장 : 100만원
- 상임이사 : 30만원
- 이사 : 10만원

납부방법

1. 동창회보에 동봉된 회비 납부 지로 용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지로 또는 자동화기기 납부
2. 우리은행 1006-981-001004 KB국민은행 031601-04-110388 KEB하나은행 274-910005-76804 기업은행 002-069553-01-011 성균관대학교총동창회 계좌로 온라인 입금
3. 입금시 성명과 학번·학과 기재
4. 연회비(연 1회)와 평생회비(평생 1회) 중 하나만 선택하여 납부

납부확인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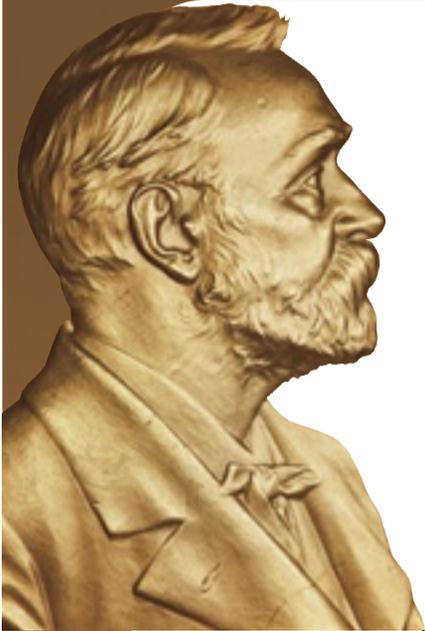
- 매월 발행되는 동창회보에 입금 동문 게재
- 동창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alumni.skku.edu)-참여하는 성균인-동창회비

※ 동문님의 동창회보 주소 변경은 총동창회 사무처로 전화·문자·이메일 등 연락 주시면 수정 가능합니다.
※ 총동창회 사무처 T.02-741-4171 H.P. 010-3152-4171 E-mail, alumni1398@hanmail.net

〈임원분담금〉 및 〈연회비〉·〈평생회비〉를 납부하신 동문님들께 드리는 혜택

1. 강북삼성병원 서울 종합검진센터(삼성 본관빌딩 지하1층) 20% 및 비급여 진료비 10% 할인 혜택
2. 평생회비 : 애경사 시 화환조치 / 연회비 : 애사 시 근조기 발송(수도권)

노벨상 기금 캠페인



1인 10,000원이면 OK!

기쁨 + 긍지 + 보람 + 만족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인 10,000원이면 노벨상 후원자가 됩니다.
- 개인 후원자 및 학과별, 단체별 후원자도 환영합니다.
- 기금은 연구 실적이 탁월하여 노벨상 후보자로 거론되는 교수들을 격려하며, 연구 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해 사용됩니다.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6-680-417100 (성균관대학교총동창회)

2020년 9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7명의 동문님께서 2,351만원을 납부해주셨습니다.

총 입금액 : 1,239,092,585원

고액기부자



박명환(77·기계공학)
(주)로봇밸리 대표이사
경남동문회 회장
1,000만원



조서연(78·화학)
(주)다원디자인
대표이사 회장
1,000만원



지홍근(84·화학)
H&A 파마켄
연구소장
300만원

일반기부자

- 김현숙(71·섬유공학) 10만원(총 50만원)
- 이재범(76·경영) 10만원(총 190만원)
- 송재혁(79·금속공) 30만원
- 박성혁(93·정보공) 1만원(총 11만원)



2,799,315,348 원

2020년 9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3명의 동문님께서 총 53만원을 납부해주셨습니다

GLOBAL
SKKU
ALUMNI
SCHOLARSHIP



일반기부자

- 김정현(52·정치외교) 50만원(총 2,050만원)
- 최명륜(72·교육) 1만원(총 22만원)
- 최용수(73·교육) 2만원(총 52만원)

기부안내 : 글로벌 성균장학기금

접수처 : 총동창회 사무국 02-741-4171

우리은행 1006-901-291360(예금주 : 성균관대학교)

■ 글로벌센터(동창회관) 건립기금 ■

2020년 9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5명의 동문님께서 총 41만원을 납부해주셨습니다.

목표액 : 13,000,000,000원 입금액 : 12,430,205,016원

일반기부자

- 홍 균(62·영문) 20만원(총 50만원)
- 송재혁(79·금속공학) 30만원
- 박상률(82·생명과학) 4만원(총 74만원)
- 김형태(85·산업공학) 2만원(총 62만원)
- 박성혁(93·정보공학) 1만원(총 130만원)
- 최수일(04·신문방송) 4만원(총 126만원)



(주) VL&CO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02)548-6872 www.louiscastel.com



LOUIS CASTEL
PARIS